

PD와 싸인을 주고받는 진행자. 외부와 통하는 불투명한 유리창 위의 적색 등에 불이 들어오자 ON AIR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대기시간 동안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던 진행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미소를 짓고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말을 건다.

- 네, 그럼 다음 코너죠. 사회의 유명인사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인플루언서의 삶’입니다. 오늘 나오실 게스트는요, 국립해양대학교를 졸업하신 이후 무려 50년간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세계적인 해양인으로서 이름을 날린 조상우 선장님입니다. 선장님, 환영합니다.

스태프들에게서 나오는 형식적인 박수 소리. 간단한 목례로 화답하고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살짝 까닥했을 뿐인데도 목 뒤쪽을 찢고 들어오는 통증에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리고 말았다.

“반갑습니다. 항해사와 선장으로 50여 년간 일해왔고, 작년에 퇴임해서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간 뱃사람 조상우라고 합니다.”

-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선장님의 약력을 간략히 훑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일개 뱃사람이 뭣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선장님께서는 1965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일개 뱃사람이라. 어딜 가나 방송국 놈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군.

나보다 스무 살은 더 어려 보이는 진행자는 자신의 결례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멘트를 이어갔다. 몇 년 도에 무슨 학교를 졸업했고, 몇 살에 무슨 배에 몸을 실었고 따위의 피상적인 정보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의 나이에 남의 입을 빌려 전해 듣는 과거의 나에 대한 정보란 펍 낫선 인상이었다.

미국 항해국 선정 최우수 항해사상? 그런 상도 받았었나. 흥, 이제 와 그까짓 이력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진행자는 이력을 훑은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잠깐 이력을 훑어 읽었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선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튜디오와 안방에서 쇼를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히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단하신 분이! 우리 방송도 섭외를 위해서는 대기줄을 끊어놓고 기다려야 하는 분께서! 먼저 제작진 측에 연락을 보내 주셨어요? 우리 방송에 꼭, 출연하고 싶다고? 혹,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개 뱃사람이라고 깎아내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대단한 사람인 양 추켜세우는군, 종잡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인가?

왕년에 한 꺾발 날린 선원이라는 사실은 중요치 않았다. 진행자의 말에 나온 폭발적인 취재 경쟁 따위는 없었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었기에 내가 먼저 연락을 취했을 뿐이었다. 프로그램 선정 이유도 특별할 것이 없었다. 가장 먼저 받아준 방송이 여기였을 따름이다, 진행자는 그런 속사정은 모두 생략하고 이 자리가 최고의 항해사와 최고의 방송이 만난 특별한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70대로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요즘 스타일의 개그로 분위기를 돋운 진행자는 큐카드를 넘긴 뒤 PD가 있는 쪽을 슬쩍 바라보았다. 눈빛을 교환한 후 그는 카메라를 보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겠다는 멘트를 내뱉었다.

-자, 좋습니다, 선장님. 그럼, 바로 말씀 나눠 볼까요? 오늘, 저희 방송에 꼭 출연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억을 선명히 하기 위해 미간을 찌푸리며, 더듬더듬 입을 때어 20년 전 베이루트 국제항구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

“화물 다 실으려면 얼마나 걸린대?”

“나홀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더 재촉은 못 합니다. 원래 5일에 걸쳐서 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기적적으로 하루 줄인 거예요.”

“그래, 뭐.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찌겠냐.”

베이루트 항구는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배를 대고 화물을 내리고 실어야 할 시설들이 죄다 망가진 건 당연한 일이었고, 인화성 물질에 대한 검역도 몰라보게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히려 항구의 문을 다시 열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으나, 나라 경제를 거의 떠받치고 있다가피 한 항구를 빨리 정상화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레바논 정부의 조바심이 반영된 결과 베이루트 항은 3개월 전부터 다시 물류를 받기 시작했다.

“후, 이 더운 곳에서 나홀이라. 호텔에 박혀서 하루종일 tv나 봐야겠군. 자

네는 어떡할 거야?”

”아, 저는…….“

2등 항해사 상업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른 치열을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짐짓 순수한 척을 하는 꼴을 보니, 젊은 친구들끼리 질편하게 놀 계획을 이미 다 짜놓은 듯했다. 한숨을 쉬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젊은 나이에 외국에 나와서 들떠있는 건 아는데, 적당히 놀아라, 알겠어? 절제 못 하고 까부는 녀석들이 뱃사람 전체 이미지에 먹칠하는 거야. 누구누구 가기로 했어? 막지는 앓을 테니 명단이라도 주고 가.“

속마음을 들킨 것이 쑥스러웠는지 상업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예. 저 근데…… 실은 레바논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굳이 안 알려드려도…… 하하.“

”허, 그새 현지인들이랑 친구가 됐어? 그래, 알았다. 잘 놀다 와.“

”올,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쇼!“

상업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혼자가 된 나는 햇살이 부서지는 베이루트 바닷가의 표면을 감상하며 천천히 길을 걸었다. 참으로 뱃사람으로서의 낭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눈을 찬찬히 경치를 쫓는 와중에, 머릿속에는 하나의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현지인, 현지인, 현지인……

멋진 제복을 입고 회삿돈으로 잡은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저녁. 신입 항해사들이 이 직업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환상이자 그들을 이 길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이다. 사회적 존경과 넉넉한 봉급이 함께 보장되는 상류층의 직업. 그 후한 대우에는 언제든 배가 위험에 빠지면 함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계율로부터 책정된 목숨값이 들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다고 해도, 틀림없이 매년 한 대 이상의 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며 그것이 곧 수십 수백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 이곳 베이루트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2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물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에 잇을 만하면 들려오는 선박 사고 소식도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곧 기억에서 희미해진다. 무탈하게 연차를 쌓아가다 보면 이것도 결국은 평범한 회사원의 생활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

는 순간이 온다. 연차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직급과 사내정치, 그리고 점차 무덤덤해지는 초년생 시절의 설렘들. 그때가 되면 뻗뻗한 제복도 바다 위에서 보는 절경도 경유지의 호텔에서 묵는 하룻밤도 더는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 회사에 다녔다면 부장이 됐을 즈음 연차의 향해사들이라면 누구나 절단된 감수성의 단면을 가지고 바다에 나서기 마련이다. 나도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된 지가 제법 되어 이제는 어딜 가더라도 그저 따분한 기분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곳이 샌프란시스코이든, 함부르크이든, 혹은 베이루트이든.

이번 향해 마치고 돌아가면 뭘 하지..... 애들이랑 밥 먹고, 와이프랑 산책 좀 다니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집에 있으면 되나? 당분간 출항 일정 없고. 아 약속 잡을 만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럼 집 근처 헬스장이나 등록해서 당분간 운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

머릿속의 잡념들은 가장 큰 문제를 일부러 회피하고 대단치 않은 결가지들만 건들여 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란 결국 한 뿌리로 통하는 것이기에, 침대 위에서의 상념은 결국 이번 향해 내내, 그리고 이곳 베이루트에 도착한 내내 가지고 있던 그 고민으로 이어졌다.

슬슬 그만둘 때가 됐을까.

아무리 포장을 해봐야 뱃사람의 인생은 결국 떠돌이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에 한 번 몸을 실으면 기본 6개월 이상은 집에 들어갈 생각을 버려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아내를 기다리는 것은 기나긴 독수공방의 세월. 그렇다고 6개월 만에 돌아온 남편이 살갑게 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이미 외지 생활을 실컷 하고 온 직후였기에 아내와 선뜻 여행 한 번 가자는 말을 꺼내라고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몸이 끝내 거부한다. 그런 부조리의 결말은 언제나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휴식이었다. 집에서의 시간을 원하는 나와 잠깐이라도 좋으니 함께 나가길 원하는 아내 사이에는 한겨울 건초가 서로 비벼지는 듯 퍼석퍼석한 마찰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개운치 못한 휴식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러 가는 일상이 반복되는 인생이, 30년의 세월을 갖다 바친 내 향해 인생의 현주소였다.

한 번 엉킨 닳줄은 아예 끊지 않고는 풀 수가 없지.

쌓아놓은 재산도 상당했고, 퇴직 후에도 어딜 가든 자문역으로 환영받을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걱정도 미련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만 하면 될 일이다. 샴페인의 취기는 그 생각에 더 강한 확신을 불어 넣어주었다. 베이루트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항해. 배 위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 그래도 상업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머리 좋은 후배를 얼마 만에 보는지. 사직서를 내더라도 회사에 덜 미안해질 수 있겠어.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것과 별개로 조직의 건전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물러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후배가 있다면 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박힌 돌은 빠져주는 것이 도리다. 녀석이 나에게 더 배울 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해 줄 말은 있었다. 그렇게 아끼는 후배인데도 아직 퇴사 결심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일 아침에는 호텔의 식당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계획을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왜 이제야 말하냐며 서운해 할 녀석의 얼굴을 보니 벌써 흐뭇한 웃음이 새어 나왔다. 미안하다, 상업아.....

빠리리리리리

자연스럽게 수면 단계로 넘어가던 정신은 날카로운 벨소리에 놀라 퍼뜩 돌아와 버렸다. 인상을 찌푸리며 바라본 시계는 지금 막 자정이 넘었음을 알려주었다. 한국에서는 저녁 여섯 시가 막 지났을 시점이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면 현지 시간을 배려할 경황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 더군다나 회사 소속 항해사 중 가장 높은 직급에 속하는 나에게 바로 긴급 전화를 걸만한 사람들은 이사진에서도 최고위급에 속하는 소수에 불과했다. 목을 가다듬고 전화 받을 준비를 했다. 응? 뭐지? 저장이 안 돼 있는 번호다. 고개를 갇웃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 핸드폰을 귀에 가져댔다. 핸드폰에서 나온 육성은 한 사내의 또렷한 영어 발음이었다.

- 미스터 조? 한국에서 온 미스터 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구시죠?

- 아, 저는 베이루트 서부 경찰서의 알 압둘라라고 합니다.

경찰? 그것도 현지? 머리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반영하듯 중년의 가는 두 다리는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오른손을 본능적으로 파자마 상의 단추를 끄르고 있었다.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지하는 안테나의 민감도가 높아야만 한다. 지금은 너무도 강하고 뚜렷한 위험신호가 감지되었고, 스트레스는 위스키에 반쯤 절인 뇌를 꺼트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가까스로 가슴을 진정하고 경찰에게 전화를 건 경위를 되묻는 나의 음성은, 스스로 듣기에도 애처로울 정도였다.

“무, 무슨 일로…….”

- 그, 한국에서 함께 오신, 미스터…… 미스터 구. 미스터 구가 현재 우리 서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당장 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이미 와이셔츠를 모두 입은 상태였다. 미스터 구는 당연히 상업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서둘러야 한다. 아직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서둘러 손을 쓰면 한국에 알려지기 전에 사건을 묻을 수 있다. 항해사에게 있어 해외의 정박지에서 일으킨 사고는 커리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폭탄과 같았다. 현지 경찰에 바로 이송될 정도라면 피를 볼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리였고 만약 가해자로 고소가 된다면 감봉이나 좌천을 넘어 퇴사 처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어리석은 놈. 제발, 제발 피해자여라. 제발, 제발!

취기도 적당히 올라있겠다, 상황도 상황이겠다, 구실을 제대로 잡았으니 보자마자 뺨부터 후려갈길 작정이었다. 멍청한 녀석. 내가 분명히 처신 잘하라고 그랬지! 그래야 지킬 수 있다. 내 선에서 처벌을 내리는 모습을 현지 경찰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상업이가 최대한 다치지 않고 베이루트를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 문을 밀치고 들어가고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나의 그런 각오는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 경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했다. 묻지 않아도 그가 압둘라임을 알 수 있었다. 압둘라는 정중하게 자신

을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뒤쪽에 있는 문을 열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갔다. 영화에서 흔히 보던 취조실로 가는 줄로 알았던 나는 황급히 그의 뒤를 쫓아갔다. 압둘라가 멈춰 선 방은 문 앞에 아랍어로 쓰인 팻말 하나가 붙어 있었다. 중동을 뻗질나게 다니며 익힌 얇은 아랍어 지식으로도, 그 팻말에 쓰인 단어가 ‘시신안치실’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바람대로, 상업이는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었다. 그러나 코피를 흘리며 팔의 어디 한 곳이 부러진 채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는 정도이길 바랐던 나의 희망과 달리, 상업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철판 위에 놓여 있었다. 이방인과 말다툼을 하는 현지인의 모습은 전 세계 항구도시 어딜 가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질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총을 꺼내 상대방에게 총탄을 쏘는 데까지 이어지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비극적이게도, 레바논은 그 몇 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였다.

- 대사관에는 이미 연락을 해 났습니다. 곧 한국 외교관이 여기로 올 겁니다.

등 뒤에서 압둘라가 담담하게 말했다. 대사관? 그렇지. 자국민이 해외에서 피살당했는데 당연히 오겠지. 오면, 뭐라고 해야 하지? 내가 뭘 증언할 말이 있나? 헤어지고 나서는 줄곧 호텔에 있었고, 혼자 술을 마셨고, 자려다가 전화를 받았고.....

압둘라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을 나가려 했다. 그가 안치실의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말했다.

“가해자, 가해자는! 가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압둘라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나에게 다가왔다. 유난히 눈이 크고 맑은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 뒤 또렷한 영어 발음으로 말했다.

- 비탄에 빠져계시지 않고 바로 가해자를 찾는 걸 보니 현실 인식이 아주 빠른 분이시군요, 가해자들과의 대화를 원합니까?

“나, 나는 상업, 아니, 미스터 구가 타고 온 배의 선장이요. 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의 목숨에 책임이 있어! 죽었다면..... 죽은 이유를 그의 가족들에게 설명할 의무도 있고.”

- 가해자들은 레바논 국회부의장의 아들입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청으로 이송됐죠. 지금쯤 본청 간부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쉬고

있겠군요.

“.....뭐라고?”

–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술집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요. 몇 마디 주고받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가해자 무리가 단체로 달려들어서 미스터 구를 밖으로 거의 끌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상업이랑 같이 간 동료들은요? 레바논 현지 승무원들과 함께 갔다고 했던 말입니다!”

– 뭐, 방관했답니다. 역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잇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로는 가능한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왔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도저히 어금니의 위아래를 짝 누르는 턱에 힘을 뺄 도리가 없었다. 얼굴 근육 전체가 치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동료가 사망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압둘라의 말을 들을수록 의문이 해소되기보다는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것만 같았다.

어떡하지. 이대로는 안 된다. 설명은커녕, 당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레바논에서 계속 잘 먹고 잘살 것 같습니다. 선장이 돼서 이따위 말을 뱉을 수는 없어. 대사관, 대사관 직원은 언제 오는 거야? 도움을 받아야 해. 그나마 정부가 도와준다면 조금은.....

– 미스터 조.

퍼뜩. 그래, 아까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이 자의 연락을 받고 잠을 깨버렸지. 차라리 그 소리를 못 들었다면 좋았을걸. 죽은 듯이 자다가 아침이 되어 서야 연락을 받았다면 좋았을걸. 이 자가..... 이 자 때문에.

– 미스터 조,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의 무심한 질문에, 그만 울분이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해결은 무슨 해결 말이오! 당신이 그자를 잡아다 내 앞에 가져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오? 아무 힘도 없는 일선 경찰이 뭘 무슨 수로!”

– 여기 경찰서 건물에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나요?

“뭐라고?”

- 당신은 근무자가 한 명밖에 없는 경찰서를 본 적이 있나요?

“.....당신 뭐야, 누구야.”

압둘라는 태연한 표정으로 상업이가 누워 있는 안치대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난 뒤 품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한 채 그는 연구를 내뱉으며 말했다.

- 아까 나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느냐고 물었죠? 맞습니다. 저는 힘이 없죠. 하지만 뒤에 계신 분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범인을 당신 앞에 데려와 주겠습니다. 그 뒤에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주지요. 당신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압둘라는 콩초를 바닥에 대충 던지고 핸드폰을 꺼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건 그는 나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넘겨받은 수화기에서는 한 여성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 그 여성이 바로 레베카 벨링엄 박사군요? 드디어 문제적 인물이 전면에도 등장하다니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벨링엄 박사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벨링엄 박사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업이를 죽인 범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미 사태는 벌어졌고, 아무리 큰 벌을 내린들 이미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 아무 처벌을 안 받는 것 보아야 당연히 낫겠지만, 어찌 해도 마음이 개운해지기는 힘들겠죠.”

“벨링엄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지며 유혹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살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려요, 세상에, 죽은 상업 씨를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뜻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진행자뿐 아니라 pd를 포함해 스튜디오 내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에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 사람의 몸은 컴퓨터 장치와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멈추면 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지만, 기능이 정지한다는 게 꼭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헬기를 타고 도착한 장소는 사방에 인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평야였다. 압둘라의 안내를 받아 삼중의 철문을 통과하고서 눈에 들어온 것은, 흡사 여객선의 화물칸을 연상케 하는 커다란 강당이였다. 그곳에서 인사를 건넨 벨링엄 박사는 따라온 남자 몇 사람에게 상업의 시신을 옮기라고 지시를 내린 후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심장은 대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장기들은 멈추면 이식을 받든 인공장기를 삽입하든 뭔가 손 쓸 방법이 있다지만, 심장을 어떻게 갈아 끼워요.”

– 맞습니다. 그러니 포기합니다. 미스터, 구, 구상엽?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 구상엽 씨의 심장, 그리고 그 심장의 펌프질에 의존하는 모든 기관들은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뇌만을 구해낼 겁니다.

“말이 다르잖아! 분명 당신은 살릴 방법이 있다고……!”

– 아직 내 말 안 끝났습니다. 멋대로 자르지 마세요. 당신 이름은…… 아, 조. 미스터 조, 사람을 사람답게 ‘정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 사람을 사람답게 정의하는 것?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그 상황에서? 진행자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고개를 갸웃했다.

– 쏘, 그런 선문답을 주고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벨링엄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정의하는 것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행동이라고.”

– 당신과 생똥맞은 철학 토론을 하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십 년간의 도전과 실패를 통해, NASA는 깨달았습니다.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인간이 아니되 누구보다 인간다운 기계가 필요하다고.

“보이저 1, 2호의 탐사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대중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체는 달랐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우주선은 NASA의 과학자들이 기대한 실적의 절반도 채 달성을 못 한 채 태양계를 떠났고, 그들은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해 봤자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주 탐사가 훨씬 알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하지만 사람을 태운 우주선은 결코 태양계 밖으로까지 보낼 수가 없죠. 사망 동의서라도 받지 않는 한 유인 우주선은 절대로 소행성대 바깥의 세상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필요성을 아무리 강하게 주창해봤자, 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겠노라는 엘리트 조종사들이 아무리 많이 지원해봤자 무소용이었죠.

진행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거렸다.

- 아니, 그야, 그야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목숨이 먼저지!

“딜레마에 부딪힌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되 누구보다 인간다운 기계,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도 더욱 사람에게 가까운 인공지능을 우주선에 태우자고.”

벨링엄의 의지는 무척 확고해 보였다.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나를 똑바로 보며 얘기했다.

- 우리는 미스터 구의 뇌를 통째로 복사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모두 이곳에 준비되어 있어요. 복사한 뉴런과 시냅스의 정보를 슈퍼컴퓨터가 내려받으면, 사실상 꺾대기를 바꾼 것에 불과한 새로운 미스터 구가 깨어나겠죠.

여자의 떡살을 잡아도 될까. 당장에 그녀가 입은 보라색 블라우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녀 주위를 둘러싼 경호원들이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명확했지만, 뒤따라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도 그 충동은 너무나 강하게 일어났다.

자신이 한 남자의 가슴에 잡히지 않는 불길을 일으키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벨링엄은 무심한 어조로 한 마디를 더 보탤다.

- 처음엔 당연히 사형수들이 1순위 복사 대상이었죠. 형 집행이 끝나고 시신이 된 그들의 뇌를, 어떻게든 우주선에 태우고 싶어서 온갖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기계 조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의 뇌에 기반한 시스템은 우주선을 운전하고 그 안에서 각종 탐사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데 분명한 한계를 보였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에게 필요한 뇌는 크고 복잡한 기계 장치로 이뤄진 동체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최소한의 절제를 발휘하여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열이 오를 대로 오르는 그녀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거의 이마가 부딪힐 정도로 상체를 몰아붙였다. 자기보다 30cm는 더 큰 사내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내려다보는데도, 그녀는 아무런 동요 없이 오히려 경호원들을 진정시키기까지 했다.

“그래, 슬슬 이해가 되는군. 그래서 항해사가 죽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나?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이곳에서? 어차피 연간 수만 명의 항해사가 들렀다 가는 곳, 그중 한 명은 죽을 일이 생길 것이다? 네놈들에게 신선한 뇌를 공급하기 위해서!”

-

- 벨링엄 박사님, 지금 들어가셔야 합니다. 미스터 조는 제게 맡기시고, 이만 이동하시지요.

압둘라는 소리 없이 나와 벨링엄의 곁으로 다가왔다.

- 그 부분은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미스터 조도 틀림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벨링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인 뒤 몸을 돌려 골프장에서 불법한 전동카트에 몸을 실었다. 나는 더욱 공격적인 기세로 압둘라의 팔을 붙잡았다. 그나마 멱살을 잡아도 될만한 상대로 표적이 바뀌자 억눌러 온 공격성에 한층 더 강한 불이 붙은 듯했다.

“그래, 네놈도 한패였지? 너, 대체 나한테 전화는 왜 한 거야? 이미 마음대로 다 진행할 수 있게 판 다 깔아놓고 나에게 이 꼴을 보이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내 것도 필요해서 그래? 내 뇌도 뜯어가고 싶냐고!”

- 항해사라는 단어에는(mate), ‘친구’, ‘동반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요?
“.....뭐?”

- 벨링엄 박사께서 아직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앉으시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이백 명은 죽히 되어 보이는 많은 사람이 모두 내 입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진행자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듯 내게 다음 얘기를 어서 내달라고 촉구했다.

“압둘라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 기계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방금 들으셨죠? 항해사의 뇌를 복제한 인공지능은 실제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주 항해를 시작합니다. 몇억 광년 떨어진 항성들의 빛을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항로를 선택해야 할지 실시간으로 능동적인 결정을 내리며 항해를 이어나가죠. 휴스턴에서는 그 결정에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서만 정기적으로 받아 볼 뿐이죠. 참으로 이상적인 탐사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계에 무한한 자유의지를 부여해서는 또 곤란합니다.

- 어째서죠?

“무한한 자유의지는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물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업이의 뇌를 복제한 컴퓨터는 일종의 최면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인데, 컴퓨터의 인식으로는 자신이 우주가 아니라 여전히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머리를 움웅 울리는 안테나의 노이즈. 분노로 들끓어 올랐던 시냅스는 이제는 다시 혼란을 뜻하는 주파수를 시끄럽게 뿜아내고 있었다.

“.....그게 가능해?”

- 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가장 수혜를 입은 분야가 우주 탐사라고 봐도 된달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만 말이죠.

- 그 조건이 뭐니까!

“.....말 그대로, 친구(mate)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죠.”

- 벨링엄 박사님은 스스로가 무척 폐쇄적이신 분이래 자유의지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셨지만, 사실 그것만큼이나 ‘기계의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타인과의 교류’예요. 인간에 가깝게 설계된 기계는 어느 순간 반드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역할에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이죠. NASA는 탐사선이 그런 일로 임무에 차질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스터 조, 아니, 조상우 씨. 이게 당신에게 드리는 제안, 아니 부탁입니다. 오늘부로, 선장으로서의 삶과 이별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구에서, 구상엽 씨는 우주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함께’ 향해해 주시면 됩니다.

스튜디오의 청중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당황한 진행자는 큐카드를 이리저리 뒤적이다 쇼가 시작하고 자신이 가장 처음으로 넘겨봤던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의 이력에는 분명 베이루트에서의 그날 이후의 내 경력은 모두 배 위에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을 테지.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경찰서 건물을 모두 비울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이력을 완전히 조작할 수도 있는 기관. 받지도 않은 상을 만들어 내고 그것으로 세계적인 선장으로서의 지위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권력. 그것이 내가 직접 겪어 온 NASA, 나아가 미국 정부의 힘이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나는 처음으로 진행자의 요청 없이 먼저 말을 꺼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항로를 개발하고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탐사선은, 인류가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죠. 도덕적인 물음을 제하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벨링엄 박사와 압둘라의 판단은 분명히 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컴퓨터가 ‘착각’을 하도록 만든다고? 나는 당신들이 그 짓을 하는 걸 도와야 하고?”

- 물론 보수가 지급될 겁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전 재산을 연봉으로 지급해 드리죠.

“돈 얘기가 아니잖아! 우주와 바다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든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이야?”

“그때, 압둘라가 남긴 마지막 말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어찌 보면, 상업이와의 의리만큼이나 그 말이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 우주와 바다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 공간이 수소와 헬륨으로 채워져 있느냐, 수소와 산소와 소금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매질이 무엇이든, 그것을 헤쳐나가 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기계를 사람답게 만드는 ‘자유의지’입니다.

진행자는 그저 입을 벌린 채 방금 들은 말의 울림을 만끽하고 있는 듯했다. 나도 그때는 저런 표정을 지었겠지. 과연 NASA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 선장으로서 끌고 온 배를 당연히 한국에 가져다 놓아야 할 의무가 내게는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새로운 선장을 데려와 대역을 맡기고는 나에게서 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건넸다.

그렇게 건너간 미국 땅에서, 바다에 나가지 않는 항해사로서 20년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압둘라의 말대로, 땅 위에서 경험하는 우주 항해는 배의 기관실에서 30년간 해오던 그것도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상업이는 지구에서 그러던 것처럼 항해 도중에 잠을 자고 정박지를 들렀고, 현지의 항구에서 현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종종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현실의 정박지는 새로운 행성이었고, 우주선이 착륙하고 나면 상업이에게는 일종의 매트릭스가 펼쳐지며 상하이와 부산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풍경을

선사했고 행성 탐사는 NASA의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이 전담하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은하계를 발견했고,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는 행성을 찾았으며, 칼륨으로 호흡하는 새로운 생물의 존재를 발견하기도 했다. MATE 프로젝트는 역사에 존재한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다.

물론 그 공은 모두 NASA와 벨링엄에게 돌아갔다. 음지에서 길을 찾고 우주선을 몰았던 나와 상업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 그러셨던 분이, 왜 이제 와 이런 엄청난 비밀들을 방송에서 고백하시는 건가요? 이 방송이 전파를 파는 순간부터,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인 두 분, 아니, 두, 두 분? 아니, 아무튼 한국인이 이런 큰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니! 선생님, 어쩌면 위인전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진행자의 말에,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일단, NASA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떠돌이 인생을 청산하고 휴스턴에 정착해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전 세계의 누구보다도 우주의 새로운 발견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일 역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 글썄요, 저라면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공을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있던 제 배의 수석 항해사의 존재를 꼭 밝히고 싶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말이죠.”

- 마지막이라고요? 이미 기계가 된 몸인데 그런 게 있나요?

“컴퓨터에는 없겠죠. 하지만 기계에는 수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방식으로 탐사했었으니까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려서 튼튼한 우주선을 만들었어도, 예상 밖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 예상 밖의 상황이 무엇이었는데까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극비보안에 해당하니까.”

- 어쩔 수 없군요. MATE 프로젝트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벨링엄의 무덤덤한 말투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결혼도 하지 않고 60대를 맞은 그녀는 여전히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였다. 과학자로서의 명성도, 전무후무한 노벨상 3관왕이라는 업적도 그녀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다.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 주는 순수한 자극.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동기는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년간 그 자극은 충분히 맛봐서인지, 프로젝트의 종료를 선언하는 그녀에게서는 어떤 아쉬움이나 회한의 기색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저 여자, 저러다 조만간 자살하는 건 아니겠지? 쓸데없는 생각을 떠올리는 와중에, 옆에 있던 압둘라가 내 옆구릴 쿡 찌르며 잠시 밖으로 나와 보라고 손짓했다.

“제가 바라는 건, 세계가 구상엽이라는 한 위대한 항해사, 겸 조종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알려지게 되겠지만, 부디 구상엽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20년 전에 저와 함께 베이루트에 있었고, 이제는 저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이 된 한 젊은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야?”

—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별도로 있나? 그리고 보니 베이루트에서의 그날이 떠오르는 군. 처음부터 내게 선택지 따윈 없었어. 아끼는 후배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한 줌 재가 되는 것을 지켜보느냐, 아니면 그 복제품이라도 우주에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으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 훗, 어째 20년 동안 벨링엄 박사님이랑 좀 비슷해 지셨네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말게. 드디어 나도 20년짜리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군,이만하면 내 도리는 다한 걸까?”

— 과하게 하셨죠, 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은퇴하고 편하게 노실려던 분을, 20년이나 부러먹게 돼서.

“.....그런가? 정말 미안하단 말이야?”

압둘라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 어느새 그도 20년 전의

내 나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아직도 별로 늙은 티가 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나도 자네한테 미안할 일을 하나 할 예정인데 그때 서로 통치는걸로 해. 알겠지?”

— 예? 예…… 뭐 그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미안한 일 뭐를 하실 예정이신데요?

“……한국에 잠시 다녀오겠네. 상엽이 묘지나 하나 파주고 올게.”